

나주시, (주)가보팜스 스타기업 선정

별꿀 등 가공제품 생산 업체...전남TP와 업무협약 시제품 제작·마케팅·경영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나주시와 (재)전남테크노파크(전남TP, 원장 유동국)는 지역 대표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0년 스타기업에 (주)가보팜스를 선정, 10일 시청 이화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인규 시장, 유동국 원장, 김희성 (주)가보팜스 대표를 비롯한 기관, 기업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체결, 스타기업 지정서(교부) 및 현판 수여식을 진행했다.

나주시 스타기업은 기술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마케팅·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1년 전남TP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연간 1억 원 씩 지금까지 총 12억3천만 원을 전남TP에 출연했다.

2020년 스타기업에 선정된 (주)가보팜스는 나주 일반산단에 위치한 10여명 규모의 기업으로, 꿀, 배, 배즙 등 각종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스타기업은 시제품제작, 마케팅, 정보화, 인증, 지적재산권, 경영컨설팅 등 6개 분야의 기업 경쟁



력 강화와 판로 확보를 위한 산·학·연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스타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굴지의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스타기업 17개사, 스타기업 지정을 위한 단기 지원사업인 pre스타기업 21개사를 운영하고 있다.

“농사고민 해결”...장성군, 농업인 상담소 운영

권역별 4개소 마련... 상담~영농 현장 기술지도까지

장성군이 농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권역별로 총 4개소의 농업인 상담소를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본소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해 있으며, 남부는 진원보건지소, 중부는 황룡면 행정복지센터, 서부와 북부 상담소는 해당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에 각각 마련됐다.

상담소는 농업 기술 상담부터 영농현장 지도에 이르기까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귀농인 등 초보 농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기술지도를 제공해 원활한 정착 및 영농 활동을 돕는다.

아울러 돌발·외래 병해충 및 과수 화상병 피해를 조기에 감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상시 예찰을 실시한다.

그밖에 기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조사 업무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상담소 운영을 통해 농업 현장의 문제점들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성=박종영 기자

곡성군,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전문교육 실시

13일부터 압록유원지 등 주요 물놀이 지역 배치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곡성군이 안전관리요원 15명을 대상으로 물놀이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지난 9일 실시했다.

교육은 안전관리요원의 전문성

을 향상하고 비상시 현장대처능력을 키우는 내용으로 압록유원지에서 진행됐다.

지역 소방기관(담양소방서, 곡성119안전센터, 곡성119구조대)에

서 일하고 있는 고선희 소방장, 김영석 소방교, 김광수 소방위, 권용일 소방교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각종 안전관리 요령을 안내했다.

교육생들은 기초 수영법, 구명조끼 착용법, 익사자 구조법, 응급처치 요령, 심폐소생술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요원으로서 대응능력을 높였다.

안전관리요원 15명은 오는 13일부터 압록유원지, 청소년야영장 앞 등 주요 물놀이 지역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관리요원들에게 “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반복 훈련함으로써 익사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곡성=김경희 기자

구례 농축협·군부대 ‘농촌일손돕기’ 한마음

구례지역 농협과 축협 직원, 군부대 장병들이 매실 수확 일손돕기에 나섰다.

10일 농협 구례군지부에 따르면 지역 4개 농축협과 농협구례교육원, 군부대(철의대대) 장병 등 50여명이 9일 구례지역의 매실 재배 농가 4곳을 방문, 매실수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본격적인 매실 수확기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등으로 영농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실시됐다.

현용순 농협구례군지부장은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소멸돼 영농철 농촌 인력 수급이 안정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우리 식당은 위생식단을 준수합니다”

담양군, 음식점 위생식단 정착화로 지역경제 견인

담양군이 담양식 그린뉴딜정책에 따른 ‘일반음식점 위생식단 정착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위생식단이란 일반음식점의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종사자 마스크, 앞치마, 두건 착용과 테이블 세팅지를 사용하고 위생적인 식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음식문화의 개선과 더불어 수준 높은 위생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군에서는 위생식단 정착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사원을 운영해 전 일반음식점 전수조사를 전개하고 위생마스크, 수저 세팅지와 받침대를 보급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지역 음식점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식당을 방문한 A 씨는 “주변 일반음식점으로 확대돼 진행되면 좋을 운동인거 같다”며 “주말마다 자주 이용하는 담



양의 음식점이 업소 자체적으로도 위생을 강조하는 모습이 보여 안전하게 외식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위생식단의 정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넘어 청정담양의 이미지 제고와 외식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화순군은 10일 오전 화순읍 부영3차 아파트에 살고 계신 월남 참전 용사 덕에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를 진행했다.

광주지방보훈청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구충곤 화순군수, 하유성 광주지방보훈청장, 문형식 화순읍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월남전에 참전해 인헌무공 훈장을 받은 문병우(80) 유공자택의 출입문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적힌 명패를 달고 유공자

와 그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가족, 후손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최대한의 사회적 예우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해까지 독립유공자·유족 10명, 5·18민주유공자 40명 등 총 432명의 국가유공자택에 명패 달아드리기를 시행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

영암군
YEONGAM-GUN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범한

일상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러트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